

도시 이주민의 농촌 지역커뮤니티 적응 실태*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Rural Community of Rural Immigration

최윤지** · 황정임*** · 한송희****

Yoon Ji Choi · Jeong Im Hwang · Song Hee Han

Abstract

Many of the urban people wish to move to rural area to avoid urban problems like pollution, crowdedness, crime and after their retir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of adaptation of immigration in rural community.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239 migrations to rural are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32.0% of respondents wished to move to rural area that they were expected for countryside life, 2) 68.1% of respondents had experience to visit farmer's house 3) 49.5% of respondents agreed to rural community person is good 4) many person of migration to rural area(74.5%) have the idea that they should be active participation for community volunteer work 5) migration people was wanted to take care of them by natives in rural community on the lonely time.

주요어(key words): 농촌이주(Rural Immigration), 지역커뮤니티(Rural Community)

* 본 연구는 2009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PJ006956)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 e-mail: veritas96@korea.kr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e-mail: jihwang@korea.kr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원. e-mail: hsh-8318@rda.go.kr

1. 서론

한국 사회 발전의 주역이었던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였다. 55세에 퇴직하였을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까지 약 10년 동안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이는 베이비부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은퇴와 투자, 2011). 준비되지 않은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은 농촌이라는 거주공간을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선택하고 있다. 송미령(2006)은 국민들의 소득과 여가 시간이 늘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 등으로 귀향하려는 도시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민의 56.1%가 농어촌에서 정주할 의사가 있고, 10년 내 정주를 목적으로 준비 중인 경우도 10.6%에 이른다고 하였다. 윤순덕 & 박공주(2009)는 도시민의 64%가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2010년 한 해 동안 귀농·귀촌한 인구는 약 1만 명을 넘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40~50대라고 한다(파이낸셜 뉴스, 2011. 4. 15). 고향에 대한 향수와 농촌생활에 대한 동경 등 다양한 이유로 농촌으로 이주하고 있는 이들이 실제로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극복하여야 할 애로점이 있다. 농촌이주자들이 실제로 도시로 역이주 하는 이유로 30대에서는 자녀교육으로 50대에서는 이웃을 사귀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농민신문, '08. 8. 1).

농촌사회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우리 농촌사회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구성원이 실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도시에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이주여성, 외국인 농업근로자 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다. 농촌 전통문화와 외래문화, 그리고 도시 문화와 가치가 혼주 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주하여 온 목적은 상호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지역사회라는 공간을 매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들이 문화와 가치관의 갈등을 극

복하고 융합하며 지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과 귀촌으로 농촌으로 이주해 온 이들을 대상으로 농촌사회 적응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농촌사회 내부에 증가하는 이주민들이 기존 지역주민들과 친밀도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정주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커뮤니티 개념

커뮤니티(community)에 대한 정의를 국어사전에서는 ‘자연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 주민은 공통의 사회 관념, 생활양식, 전통과 공동체 의식을 갖는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네이버 국어사전, 2011). 이때 공동체 의식은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서서히 형성되는 것으로 획득과 학습된다(이혜영, 1997). George A. Hillery(1955)도 커뮤니티란 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 유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주택공사(1999)에서는 커뮤니티란 공간적 차원에서 일정한 영역을 공유하는 지역성과, 사회와 문화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집단적 정체성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성과 구조적 차원에서 독자적 실체로 존속하려 하는 유기체적 속성을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라고 하였다(주택공사 1999).

한편 홍이식(2004)은 커뮤니티의 기능을 크게 사회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으로 나누고, 다시 사회적 기능에는 주민자치활동의 場으로서의 기

능과 인간성 회복의 場으로서의 기능으로 분류하였으며, 경제적 기능으로는 생활정보 교환의 場으로서의 기능과 공동생활실천의 場으로서의 기능으로 나누고 있다. 김기현(2003)은 현대도시 사회의 복잡, 미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축으로 ‘커뮤니티’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커뮤니티란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유대가 형성된 생활현장에 입각한 집단이며, 오랜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와는 달리 주민의 창의와 요구를 실현하는 고유의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장헌일(2004)은 커뮤니티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연대의식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서 공공성에 대한 가치와 이익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집단’이라 정의하면서 커뮤니티의 성립조건으로 동일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주민조직)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상에 서로 상호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신성자(2002)도 마을 만들기 운동에 관한 연구에서 커뮤니티를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사회·경제·문화적인 연대의식 속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제도를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공통적 가치와 제도를 바탕으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공동체로 정의하면서 공동체 의식이란 지역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이며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로 인구사회적 특성(일반적 사항), 주거지 관련 변수, 지역관련 특성, 지역공동체 의식 등이 주요 변인이라 하였다(성희자 & 전보경, 2006)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일정한 영역(지역성)에서 구성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유대를 통해 공통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등의 가치를 인식·공유·창출하는 유기체적 집단을 커뮤니티라 할 수 있으며, 그 기본적인 요소로는 지역성,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대의식, 공동의 관심과 소속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동희(2004)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형성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주자의 정착생활을 위해서는 농촌 원주민과는 다른 커뮤니티 접근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2. 도시민의 농촌이주 및 적응 관련 연구 동향

1960~1970년대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의 주력세대들이 1990년대 들어와 ‘이도향촌형 인구이동’이라는 역방향의 인구이동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구동희, 1998). 이들의 이주 동기에 대하여 조록환(1998)은 농촌 생활이 좋아서, 도시의 저소득을 피해서, 농업의 전망을 보고서,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정년 및 퇴직 후의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부모의 영농승계를 위하여, 실업 및 실직을 당해서 등의 농촌이주 동기요인과 목적을 파악하였다. 윤순덕(2005) 등은 도시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선진국의 은퇴인구의 이동 흐름을 설명하는 데 쾌적성(amenity)을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Owen과 Green(1992)은 이주 동기에 대하여 농촌의 라이프스타일을 원하는 많은 이주자들이 농촌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탈도시(anti-urban)’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주택가격에 있어서의 지역적 차이라고 하였다. 대부분 서구 국가들에 영향을 주었던 중요한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의 결과들로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탈도시화 경향이 나타났다(Champion, 1989). 윤순덕, 강경하, 박공주, & 이정화(2005)는 전국 34개 특별광역시 및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은퇴 후 농촌이주 의사결정요인을 탐색한 결과 남성일수록, 농촌거주 경험이 있고, 농업농촌 관련 직종에 종사하며,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 이후 농촌으로 이주할 의사와 확률이 높았다고 하였다.

인간의 삶의 장소인 거주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간이고 이 속에서 생활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거주지는 일상생활을 담는 그릇이고 이웃이나 친구와 관계를 맺는 장이며,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의 누적되면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하였다(민주홍 외, 2007). 거주 공간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한다. 이때 적응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며 그 요구가 과연 그 환경 속에서 만족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이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부적응 상태에 있게 될 수 있다. 이를 다시 말하면 환경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자신을 잘 조정하고 아울러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때를 우리는 적응이라고 부른다(김경미, 1990).

정한모(2002)는 심층면접을 통하여 도시민 이주자들의 일상생활과 영농 정착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도시 이주민들의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한 경험과 귀농준비 정도가 농촌생활과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조중현(2007)은 농촌 마을의 일반적 특성을 주민들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외지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배타적인 태도, 사고와 행동이 감정적이고 비합리적 성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농촌 마을 주민들의 개인적 요인과 조직·구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며, 마을 공동 사업 추진에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주민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인지하는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회적 지위 즉 사회경제적 신분(Stinner, 1990), 거주기간(Janowitz, 1974), 사회적 연결망(한내창 & 이성전, 1999) 등이며 비공식적 연결망뿐만 아니라 공식적 연결망이 지역사회 친밀도에 긍정적 영향을 보인다(박경철 & 김성수, 2002 재인용). 박경철 & 김성

수(2002)는 농촌과 도시지역 주민 간 지역사회 친밀도 비교 연구에서 농촌지역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 지역에 대한 친밀도가 낮았으며, 농업인은 비농업인에 비하여 친밀도는 높았으나 만족도와 같은 하부영역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고, 소득은 중상의 소득(150~200백만 원)에서 가장 높은 친밀도를 보인 반면 지인수의 설명력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거주지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변화됨에 따라 이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농촌 커뮤니티에 단기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 방법

3.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온 도시민을 대상으로 적응 실태를 조사하였다.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으로 이주민의 조사 협조 여부를 파악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9.1~9.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최종 조사 대상자는 23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3명, 경북 153명, 전남 20명, 전북 63명이었다. 조사된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남성(81.6%)들이었고, 연령으로는 40대가 42.7%, 50대가 41.4%로 40~50대가 가장 많았다. 학력으로는 고졸이 42.6%, 대졸이 32.8% 수준이었다. 이주민들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농촌이 53.2%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가 어린 시절의 향수도 작용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의 거주기간은 5년 이하가 85.9%로 최근에 이주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들의 주 소득원은 농업소득이 81.0%였고 전체 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가 67.7%였다. 연간 총소득의 규모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미만의 범위에 속해 있는 경우가 3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4천만 원 이상이 24.5%이었고 1천만 원 미만의 비율도 11.7%였다. 현 마을 거주기간의 경우 11년 이상(6.6%)인 경우도 있으나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10년 이상 된 경우에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주민의 경우에도 갈등이 발생할 경우 10년 이상 거주해온 이주민을 지역주민으로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포함하기로 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변 수		n(%)	변 수		n(%)
성 별	남	195(81.6)	농업 소득 비중	50% 미만	65(32.3)
	여	44(18.4)		50% 이상	136(67.7)
연 령	20대	-	연간 총소득	1천만 원 미만	19(11.7)
	30대	30(12.6)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52(31.9)
	40대	72(42.7)		2천만 원~3천만 원 미만	30(18.4)
	50대	99(41.4)		3천만 원~4천만 원 미만	22(13.5)
	60대 이상	38(15.9)		4천만 원 이상	40(24.5)
학 령	무학	1(0.4)	주 소득원	근로소득	183(81.0)
	초졸	9(3.8)		이전소득	6(2.7)
	중졸	40(17.0)		금융소득	18(8.0)
	고졸	100(42.6)		임대소득	1(0.4)
	대졸	77(32.8)		연금/퇴직금	17(7.5)
	대학원졸	8(3.4)		정부 지원금	1(0.4)
어린시절 보낸 곳	대도시	63(27.0)	현 마을 거주기간	5년 이하	170(85.9)
	소도시	37(15.9)		6~10년	15(7.6)
	농촌	124(53.2)		11~15년	11(5.6)
	어촌	3(1.3)		16년 이상	2(1.0)
	산촌	5(2.1)			
기타	1(0.4)				

4. 연구결과

4.1. 이주 동기와 이주지역의 특성

이주민들은 농촌이주 동기에 대하여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32.0%), 도시 생활의 탈출(18.0%), 농사짓기 위해(15.0%)라고 하였다. 거주하고자 하는 마을의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는 본인이나 가족의 고향인 경우가 44.0%였고 친구 등의 소개는 21.0%였다. 이주민들이 이주한 마을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존 농촌 마을인 경우가 86.4%가 가장 많았고 기존 마을과 떨어져 새로 조성된 주택 단지인 경우는 8.1%였다. 기존 마을 안에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는 3.4%였고 기타의 경우는 2.1%였다. 특히 집성촌인 경우는 38.1%였다.

〈표 2〉 이주 동기와 이주지역 특성

단위: 명(%)

변수		n(%)	변수		n(%)
농촌 이주 동기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	64(32.0)	마을 특성	기존 농촌 마을	203(86.4)
	농사짓기 위해	30(15.0)		기존 마을과 떨어져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	19(8.1)
	은퇴 후 여유 및 도시생활탈출	36(18.0)		기존 마을안에 새로 조성된 주택 단지	8(3.4)
	기타	70(35.0)		기타	5(2.1)
마을 정보 획득 경로	본인 또는 가족 고향	88(44.0)	집성촌 여부	맞다	88(38.1)
	친구 등의 소개	42(21.0)		아니다	143(61.9)
	기타	70(35.0)			

마을내 이주 가구	5가구 미만	151(71.9)	이주 준비 기간	1년 미만	44(19.9)
	5~10가구	38(18.1)		1~2년 미만	62(28.1)
	10~15가구	12(5.7)		2~3년 미만	32(14.5)
	15가구 이상	9(4.3)		3~4년 미만	37(16.7)
				4~5년 미만	9(4.1)
		5년 이상	37(16.7)		

4.2. 농촌 이주를 위한 준비

농촌 이주를 위한 준비로는 농촌에 자주 방문한 경우가 6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계비 규모를 점차 줄인 경우가 39.6%이었고 영농과 농촌 적응 등 귀농관련 교육 준비를 한 경우는 19.6% 수준이었다. 농촌 교류 활동 참가는 17.4%였고 마지막으로 12.3%는 자녀교육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봉, 한경수, & 홍찬선(2009)의 연구에서는 자녀교육 여건에 대한 준비를 지역에 대한 정보 획득 다음으로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성별과 연령별에 따른 농촌이주 준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 40~50대 남성인 경우에 농촌 방문이 많았으며, 가계비 규모를 줄이는 등 소비를 조절한 집단도 40~50대가 많았다.

〈표 3〉 농촌 이주를 위한 준비

구분	단위: 명(%)	
	예	아니오
1) 영농, 농촌적응 등 귀농관련교육 준비	46(19.6)	189(80.4)
2) 농촌 교류활동 참가 등	41(17.4)	194(82.6)
3) 주말 농장 등 영농활동 체험	62(26.4)	173(73.6)
4) 농촌에 자주 방문	160(68.1)	75(31.9)
5) 가계비 규모를 점차 줄여왔음	93(39.6)	142(60.4)
6) 자녀교육 관련 활동	29(12.3)	206(87.7)

〈표 4〉 성별, 연령별에 따른 농촌 이주 준비

단위: 명(%)

구 분		성		연령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1) 귀농교육 등에 참석	함	40 (20.8)	6 (14.0)	7 (23.3)	18 (25.7)	18 (18.6)	3 (7.9)
	안함	152 (79.2)	37 (86.0)	23 (76.7)	52 (74.3)	79 (81.4)	35 (92.1)
	χ^2	1.056		0.151			
2) 농촌 교류활동 참가 등	함	35 (18.2)	6 (14.0)	5 (16.7)	14 (20.0)	19 (19.6)	3 (7.9)
	안함	157 (81.8)	37 (86.0)	25 (83.3)	56 (80.0)	78 (80.4)	35 (92.1)
	χ^2	0.446		0.385			
3) 주말 농장 등 영농활동 체험	함	49 (25.5)	13 (30.2)	8 (26.7)	20 (28.6)	28 (28.9)	6 (15.8)
	안함	143 (74.5)	30 (69.8)	22 (73.3)	50 (71.4)	69 (71.1)	32 (84.2)
	χ^2	0.402		0.444			
4) 농촌에 자주 방문	함	137 (71.4)	23 (53.5)	20 (66.7)	51 (72.9)	71 (73.2)	18 (47.4)
	안함	55 (28.6)	20 (46.5)	10 (33.3)	19 (27.1)	26 (26.8)	20 (52.6)
	χ^2	6.161*		0.024*			
5) 가계비 규모를 접차 줄여 왔음	함	81 (42.2)	12 (27.9)	16 (53.3)	33 (47.1)	36 (37.1)	8 (21.1)
	안함	111 (57.8)	31 (72.1)	14 (46.7)	37 (52.9)	61 (62.9)	30 (78.9)
	χ^2	2.996		0.021*			
6) 자녀교육 관련 활동	함	24 (12.5)	5 (11.6)	5 (16.7)	13 (18.6)	8 (8.2)	3 (7.9)
	안함	168 (87.5)	38 (88.4)	25 (83.3)	57 (81.4)	89 (91.8)	35 (92.1)
	χ^2	0.025		0.156			

* p<0.05, *** p<0.001

4.3.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마을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데에 74.5%가 동의를 하고 있었으며, 마을 주민과 이주민들의 사이에 대하여도 60.0%가 '사이가 좋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촌 주민들이 인심이 좋고 상부상조 하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49.5%만이 동의하고 있었으며, 지역마을 주민과 동업할 경우 성공에 대한 확신은 13.0%, 동업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20.0%에 지나지 않았다.

기존 지역민의 농업기술과 도시 이주민의 유통 및 네트워크가 결합하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기에는 심리적 장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이주민의 농촌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농촌 주민들은 인심이 좋고 상부 상조한다	41 (20.5)	58 (29.0)	51 (25.5)	41 (20.5)	9 (4.5)
현재 마을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66 (33.0)	73 (36.5)	32 (16.0)	23 (11.5)	6 (3.0)
이주한 도시민은 마을주민의 한 사람으로 마을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67 (33.5)	82 (41.0)	35 (17.5)	13 (6.5)	3 (1.5)
마을 원주민과 동업할 경우 성공할 것이다	5 (2.5)	21 (10.5)	35 (17.5)	80 (40.0)	59 (29.5)
마을 원주민과 동업할 의향이 있다	8 (4.0)	32 (16.0)	19 (9.5)	64 (32.0)	77 (38.5)
마을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 사이가 좋다	40 (20.0)	80 (40.0)	53 (26.5)	23 (11.5)	4 (2.0)
마을공동사업에서 마을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등은 없을 것이다	30 (15.0)	71 (35.5)	49 (24.5)	42 (21.0)	8 (4.0)

한편 남성 이주민의 경우 마을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좀 더 동의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집단이 40대 이하 집단에서 보다 농촌주민들이 인심 좋고 상부상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표 6).

〈표 6〉 성별과 연령에 따른 농촌 지역민에 대한 인식

단위: 평균(SD)

구 분	성			연령		
	남	여	t값	40대 이하 (~49)	50대 이상 (50~)	t값
농촌 주민들은 인심이 좋고 상부 상조한다	3.42 (1.18)	3.29 (1.00)	0.60	3.21 (1.18)	3.55 (1.12)	-2.08*
현재 마을사람들과의 관 계에 만족 한다	3.89 (1.08)	3.58 (1.14)	1.49	3.78 (1.11)	3.90 (1.08)	-.82
이주한 도시민은 마을주 민의 한 사람으로 마을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4.04 (0.94)	3.64 (0.95)	2.18*	3.85 (1.01)	4.09 (0.89)	-1.74
마을 원주민과 동업할 경우 성공할 것이다	2.19 (1.05)	2.00 (1.00)	0.96	2.12 (1.08)	2.20 (1.02)	-.54
마을 원주민과 동업할 의 향이 있다	2.16 (1.22)	2.06 (1.12)	0.43	2.22 (1.28)	2.09 (1.15)	.74
마을 원주민과 이주민간 에 사이가 좋다	3.65 (0.98)	3.61 (1.02)	0.19	3.55 (1.00)	3.72 (0.98)	-1.25
마을공동사업에서 마을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갈등은 없을 것이다	3.33 (1.10)	3.51 (1.02)	-.84	3.23 (1.04)	3.47 (1.27)	-1.59

* p<0.05

4.4.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움 받고 싶은 대상

농촌 이주 후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아프거나 교통편, 급전, 자녀 돌봄
과 교육 부분에서는 지역주민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의식이 높

았다. 그러나 쓸쓸하고 적적할 경우에는 기존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41.3%)는 비율이 높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조리법 등 식생활 측면에서의 도움과 작물 재배나 사육과 관련되는 영농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주민들은 기존 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들의 경우 적적할 경우에도 도움받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들은 기존주민들에게서 위로받고 싶어 했으며,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조리법 등에서도 남성들이 더 선호한 반면 여성이주민들은 같은 이주민과의 교류를 희망하였다.

〈표 7〉 도움을 받고 싶은 대상

단위: 명(%)

구분	도움 요청 대상		
	기존 주민	이주 도시민	도움 받지 않음
내가 아플 때	58(25.3)	15(6.6)	156(68.1)
읍이나 다른 지역에 갈 때 교통편	14(6.1)	6(2.6)	210(91.3)
생활비나 급전 등 금전적 도움	19(8.3)	8(3.5)	202(88.2)
쓸쓸하고 적적할 때	95(41.3)	25(10.9)	110(47.8)
자녀 돌봄이나 교육	12(5.3)	4(1.8)	212(93.0)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조리법 등 식생활	153(66.2)	19(8.2)	59(25.5)
작물재배나 사육 등 영농기술	144(61.5)	12(5.1)	78(33.3)

〈표 8〉 성별과 연령에 따른 도움을 받고 싶은 대상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도움필요상황	도움요청대상	남	여	40대이하 (~49)	50대이상 (50~)
내가 아플 때	기존 주민	49(84.5)	9(15.5)	26(44.8)	32(55.2)
	도시이주민	13(86.7)	2(13.3)	5(33.3)	10(66.7)
	도움받지 않음	128(82.1)	28(17.9)	70(44.9)	86(55.1)
	χ^2	0.332		0.755	

읍이나 다른 지역에 갈 때 교통편	기존주민	11(78.6)	3(21.4)	4(28.6)	10(71.4)
	도시이주민	5(83.3)	1(16.7)	4(66.7)	2(33.3)
	도움받지 않음	174(82.9)	36(17.1)	93(44.3)	117(55.7)
	χ^2	0.170		2.611	
생활비나 급전 등 금전적 도움	기존주민	16(84.2)	3(15.8)	10(52.6)	9(47.4)
	도시이주민	6(75.0)	2(25.0)	5(62.5)	3(37.5)
	도움받지 않음	168(83.2)	34(16.8)	86(42.6)	116(57.4)
	χ^2	0.386		1.850	
쓸쓸하고 적적할 때	기존주민	88(92.6)	7(7.4)	47(49.5)	48(50.5)
	도시이주민	22(88.0)	3(12.0)	8(32.0)	17(68.0)
	도움받지 않음	81(73.6)	29(26.4)	46(41.8)	64(58.2)
	χ^2	13.55***		2.829	
자녀 돌봄이나 교육	기존주민	9(75.0)	3(25.0)	10(83.3)	2(16.7)
	도시이주민	3(75.0)	1(25.0)	2(50.0)	2(50.0)
	도움받지 않음	177(83.5)	35(16.5)	89(42.0)	123(58.0)
	χ^2	0.756		7.924*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조리법 등	기존주민	127(83.0)	26(17.0)	71(46.4)	82(53.6)
	도시이주민	12(63.2)	7(36.8)	7(36.8)	12(63.2)
	도움받지 않음	53(89.8)	6(10.2)	23(39.0)	36(61.0)
	χ^2	7.29*		1.352	
작물재배나 사육 등 영농기술	기존주민	123(85.4)	21(14.6)	65(45.1)	79(54.9)
	도시이주민	7(58.3)	5(41.7)	6(50.0)	6(50.0)
	도움받지 않음	63(80.8)	15(19.2)	30(38.5)	48(61.5)
	χ^2	5.86		1.161	

* p<0.05, *** p<0.001

4.5. 갈등발생 및 내외부 교류 현황

갈등 발생의 주체는 마을 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발생할 비율이 8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을주민 단체와 이주민 개인 간의 갈등화율은 10.9%였다. 마상진(2008)은 신규 취농자들이 겪는 진입장애 해소의 실마리는 경제적 자본보다는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김정섭(2009)은 귀농자들이 농지나 정책작목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갖고 있는 기득권자(마을이장, 농협직원, 군청직원 등)와 소통하지 않고는 자본 관련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힘들고, 농촌의 생산자 조직에 가입하지 않고는 유통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혜택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주민들의 농촌사회 내외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가족이나 친척과 전화와 편지는 평균 201회, 만남은 42회 정도, 단짝 친구와 전화와 편지는 152회, 단짝 친구와 만남은 45회 정도로 교류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 이주민들은 마을 내 친한 사람의 평균으로 2.6명과 교류하고 있다고 하여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갈등 발생 및 내외부 교류

구분		n(%)	구분	평균(SD)
갈등발생주체	마을주민-이주민	155 (84.2)	내외부 네트워크	가족친척 (전화/편지) 201 (330.3)
	마을주민 단체- 이주민 개인	20 (10.9)		가족친척 (만남) 42.2 (169.5)
	마을주민 개인- 이주민 단체	2 (1.1)		단짝친구 (전화/편지) 152.2 (314.4)
	마을주민 단체- 이주민 단체	4 (2.2)		단짝친구 (만남) 45.3 (183.7)
	기타	3 (1.6)	마을내 친한 사람	2.6 (5.0)

5. 결론

본고에서는 농촌으로 이주한 도시민들이 농촌 사회 내 적응 실태를 분석하였다. 농촌으로 이주 동기는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에서 본인 또는 가족들의 고향마을로 이주한 경우가 많았으며 어린 시절을 농촌에서 농산어촌에서 보낸 경우(56.6%)가 많았다. 이들이 농촌 이주를 위하여 준비한 부분으로는 농촌을 자주 방문하거나 가계비 지출 규모를 점차 줄이는 등의 준비를 많이 하였는데 이는 특히 40~50대에서 연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농촌 마을로 이주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집성촌인 경우도 38.1%이었다.

이주민들도 농촌 마을 주민으로 마을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긍정적인면서 공동체 참여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역민들과의 관계도 대부분 우호적(60.0%)이었으나 농촌 주민들이 인심이 좋거나 상부상조한다는 인식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는 49.5%

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또한 마을 주민들과의 동업에 대하여 성공할 것 이다라고 생각하거나 동업할 의향에 대하여는 긍정적 응답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도시민들의 귀농과 귀촌으로 지역농업인의 농업기술과 도시민의 유통 관련 정보 등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하는 것은 현 수준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주민들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아프거나 금전적 도움, 교통편 등에서 는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쓸쓸하거나 적적할 경우,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조리법 등 식생활 측면의 교류와 영농기술 측면에서는 지역민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공동체 내에서의 교류를 원하는 이주민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기에 지역행정기관이나 지역리더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주민들을 포용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민들의 마을 내 친한 사람은 평균 2.6명으로 나타났으며 갈등발생의 주체로는 마을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즉 개인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도시민들의 농촌 정착을 지원 시 주거환경 등에 관한 물적 환경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 신규 취농자들의 진입장벽이 사회연결망일 경우를 생각한다면 귀농과 귀촌 지원 시 지역 농업인 또는 농촌주민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는 것이 농촌사회 정주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주민들의 지역연결망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귀농인들을 위한 지역농업지도자들이 멘토의 역할을 자처하는 시군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좋은 사례가 농촌사회에 정착된다면 귀농, 귀촌인들이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영농교육과 영농관련 정보를 이장을 통하여 전달하는 시스템에서 인터넷과 지역신문을 활용하는 등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 강대구. (2010). 귀농·귀촌의 현황과 정책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7(4), 743-771.
- 구동희. (1998). 대도시 주민의 도시탈출 이주과정—수도권 전원주택 거주자를 사례로—. *도시연구*, 4, 141-155.
- 구동희. (2004). 도시탈출이 생활양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39(1), 102-115.
- 김경미. (1990). 농촌성인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 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현. (2003). 주민자치의 기반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섭. (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3), 533-556.
-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 농민신문. (2008.8.1). 농촌정착 고민 바로 이것.
- 대한주택공사. (1999).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 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 (2011). 은퇴와 투자, 4월호.
- 마상진. (2007).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민주홍, & 한경혜. (2007).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노인의 사회관계망 변화와 적응. *한국노년학*, 27(4), 861-879.
- 박경철, & 김성수. (2002). 농촌과 도시지역 주민간 지역사회 친밀도 비교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9(1), 87-100.
- 송미령, 성주인, 박경철, 박주영, & 김정섭. (2006). 농촌의 변화를 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희자, & 전보경. (2006). 농촌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 신성자. (2002). 마을만들기 운동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순덕, 강경하, 박공주, & 이정화. (2005). *한국노년학*, 25(3), 139-153.

- 윤순덕, & 박공주. (2006).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정주에 대한 수요분석. *농촌계획*, 12(2), 37-47.
- 임상봉, 한경수, & 홍찬선. (2009). 농촌이주 및 방문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6(4), 775-793.
- 장현일. (2004). 커뮤니티 행정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한모. (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 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록환. (1998). 귀농자의 생활실태 분석. *농촌회생과 자립적 농업을 위한 귀농정책 세미나 자료집*.
- 조중현. (2007). 마을 공동사업 추진과정에서 표출된 주민 간 갈등의 근거 이론적 해석—농촌체험마을 주민 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이식, & 정재웅. (2004). 집합주거단지에서 지역성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연구. *제24회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자료집*, 27-30.
- Champion, A. (1989). *Counterurbanism*. Edward Arnold, London.
- George, A. Hillery.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 Nisbet, R. (1966). *The Sociological Tradition*. Heinemann, London.
- Owen, D., & Green, A. (1922). Migration patterns and trends. In T. Champion & T. Fielding, *Migration processes and patterns*, 1. London: Belhaven, 17-40.
- Stinner, W. F. (1990). Community size, Individual Social Position, and Community Attachment. *Rural Sociology*, 58(4), 495-521.

논문투고일: 2011. 10. 25
1차수정일: 2011. 11. 23
2차수정일: 2011. 11. 30
게재확정일: 2011. 12. 3